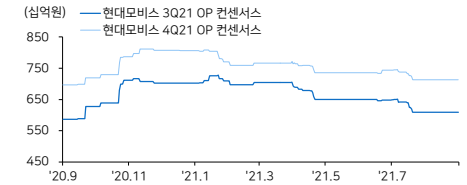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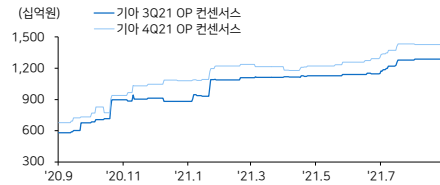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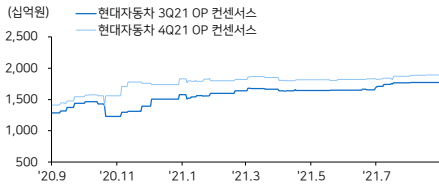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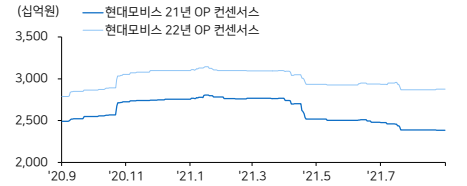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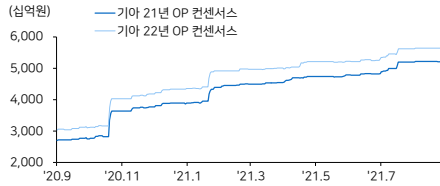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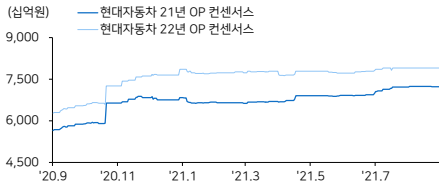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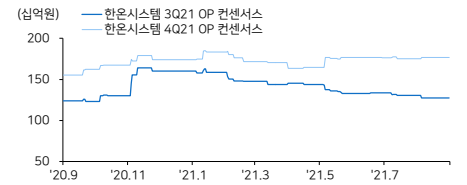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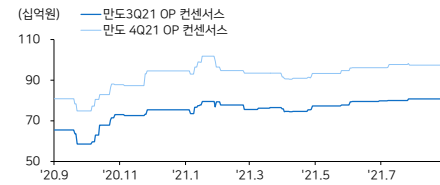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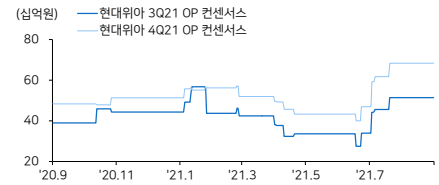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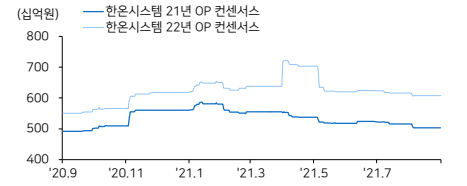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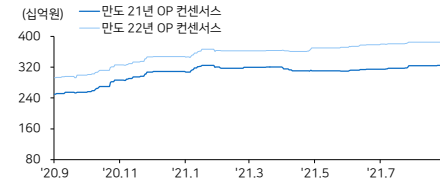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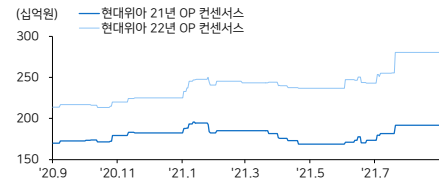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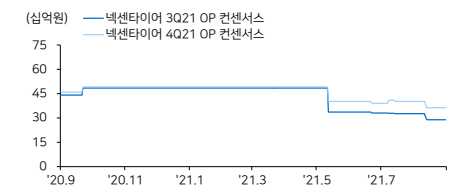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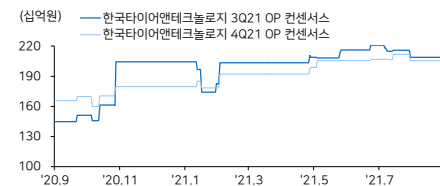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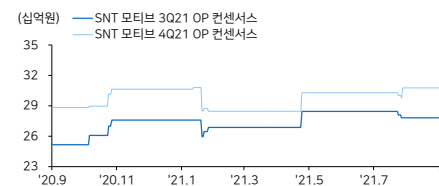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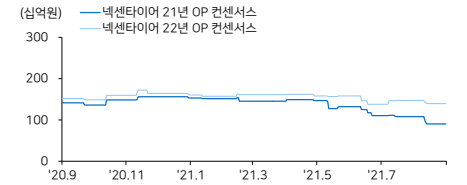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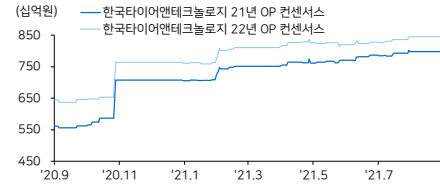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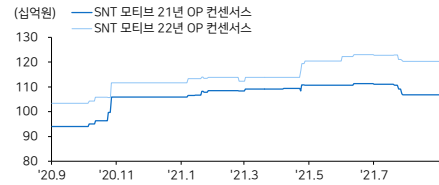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대란 돌고 질주...현대차도 추월 (파이낸셜뉴스)

올해 1~8월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4만8,658대로 집계되어, yoy + 31.2% 급증함. 같은 기간 내수 성장률이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2만2,684대로 성장세를 견인. <https://bit.ly/3wnypZA>

현대차·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속도전 (매일경제)

현대차그룹이 인건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도심 내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전기차 인프라 사업 확장에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 충전소 추가 건설, 택시용 전기차에 GPS 기능이 있는 특수 미터기를 탑재하기로 함. <https://bit.ly/3nvMab1>

집콕 넘어 차콕...車 엔터테인먼트 시대 열렸다 (전자신문)

딜로이트에 따르면 미국인의 차량 기반 미디어 소비 시간은 2030년 520억 시간, 2040년 950억 시간에 달할 전망. 이에 자동차는 단순 모빌리티 수단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중. <https://bit.ly/2Xicn1P>

GM invests in Oculi, radar software maker for self-driving cars (Reuters)

GM은 자율주행차 레이더 센서 SW 업체 Oculi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힘. Oculi의 자가 SW를 이용, 레이더 해상도를 높이고 자율주행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GM은 자율주행 기술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임. <https://reut.rs/3Ab083L>

"너나 타라" 취급받던 캐스퍼, 사전계약 첫날부터 대박 터졌다 (머니S)

29일 출시 예정인 캐스퍼의 주요 사양과 내장 디자인, 가격을 전날 공개하고 온라인 사전계약에 돌입. 접속자가 70만명 몰려 온라인 사이트가 일시 다운되었고 오후 2시 기준으로 사전계약 대수는 12,000대를 돌파함. <https://bit.ly/3ljiSF8>

반도체 수급난 현대차, 아이오닉 5 미 출시 시기 겨울로 연기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당초 올 가을 중 미국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출시 시기를 겨울로 미룸. 지속되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충분한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https://bit.ly/2YNAaHy>

미 물가 상승세 소폭 둔화...고공행진은 지속 (파이낸셜뉴스)

미국 8월 CPI는 yoy +5.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mom 으로는 +0.3% 오르는데 그침. 그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던 중고차와 픽업트럭 상승폭은 mom -1.5% 하락하며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https://bit.ly/3CF2MYW>

퀄컴, 자율주행차 기술업체 '비오니아'에 주당 37달러 인수 제안 (한국경제)

스웨덴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비오니아'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 퀄컴이 인수액으로 주당 37달러, 총액 40억달러 이상을 공식 제안함. 글로벌 부품업체 마그나인터내셔널이 지난 7월 제안한 주당 31.25달러보다 18.4% 높음. <https://bit.ly/3CFH1Y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